

붓다의 대화법과 『능가경』에 나타나는 무기설의 특징

김수아*

- I. 서론
- II. 본론
 - 1. 붓다의 문답법의 특징
 - a. 반문(反問)의 특징
 - b. 무기(無記)의 의미
 - 2. 『능가경』에서의 문답법과 무기의 의미
- III. 결론

I. 서론

불교의 목표는 인간이 무엇이며, 세계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만 있지 않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도된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까지 변화 시킬 수 있으며 결국 자각된 인식을 갖추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 인간이 전도된 인식을 버리고 자각된 인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 붓다는 문답을 통한 대화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한다. 대기설법은 청법자 중심의 설법방식으로 제자들과 다른 종교의 외도¹⁾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학자 후지타 기요시(藤田 淸)는 청법자 중심의 대기설법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대화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대화과정 속에서 상대는 자신이 가졌던 모순이 명료해지고, 보다 고차원의 입장으로 스스로 나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것이다.²⁾

* 동명대학교 조교수

1)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내도(內道)라고 칭하고 다른 종교를 외도(外道)라고 부른다.

2) 최영효, “초기불교중심으로 한 불교의 심리치료의 세 관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논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기설법을 특징으로 하는 봉다의 문답법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다는 왜 문답을 통한 대화를 선택하였는지, 문답을 통해 추구하는 봉다의 대화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1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반어법과 유사한 질문자의 질문을 되묻는 반문(反問)의 특징과 침묵이라는 무기(無記)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대화법에서 무기라는 표현방식을 선택한 봉다의 의지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능가경』에서 추구해 볼 것이다.

무기설은 현대불교학이 시작된 이래 동서양 불교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기존연구는 무기를 선택한 봉다의 의지를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 첫째는 단지 형이상학의 부정, 거부, 배척 등으로 보려는 입장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사유의 한 표현수단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봉다의 대화법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무기의 의미와 무기를 선택한 봉다의 의지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봉다의 문답법의 특징

봉다는 자신을 찾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나 외도들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였다. 대화는 봉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통방식이자 교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봉다는 상대방이 설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설법했으며,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 내면과 정신의 진정한 변화를 의도하였다. 또한 그는 상대방이 바라문이든 외도이든 항상 동등하고, 정중하고, 자상한 방법으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동일한 견지에서 출발하며 때로는 동일 술어까지 사용하면서 대화를 진행한다. 이러한 대화과정에서 봉다는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견지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간다. 그러므로 봉다에게 대화는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봉다의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식이 전도(顛倒)

되었음을 자각하여 스스로 바른 인식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지식의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맹신을 지양하는 비판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질문하라고 말한다.

수행자들이여, 부처님이나 가르침이나 승가나 길이나 방도에 관하여 어떠한 의심이나 의혹이라도 갖고 있다면 수행자들이여 질문하라.

그대들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라면, 한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그 대답을 알려 주도록 해라.³⁾

이처럼 붓다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도록 권유한다. 만약 스승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생각된다면 동료에게 질문하여 서로 탁마(琢磨)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붓다는 스승이나 동료와의 문답을 통한 대화가 가장 바람직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붓다는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상대방이 질문하는 주체이자 자각하는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그 이유는 문답이 형성되려면 질문하는 자와 질문을 받는 자가 필요하다. 즉 질문에는 질문을 받는 타자가 필요한 법이다. 이 경우 타자란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대상화된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붓다가 대화법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각(自覺)에 의한 인식의 전환에 있다. 이러한 자각에 의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목적하는 대화라면 그 대화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대화의 상대방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야 하고 그 의문을 스스로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받는 타자는 궁극적으로 대상화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것은 질문하는 자와 질문 받는 자가 동일한 사람이 될 때 자신의 인식의 오류를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질문을 받는 타자 또한 대상화된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는 주체가 되고, 연이어 자각하는 주체가 되도록 대화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붓다는 어떤 질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신의 피난처로 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거나 피난처를 구하지 말라고 한다. 인간은 자신의

3) 윌풀라 라홀라,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역주(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5), pp. 26-27.

지혜와 노력으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봇다는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⁴⁾이라고 역설한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이루는 것은 스스로의 자각에 기인하는 것이지 외적인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지성을 보여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봇다의 문답법을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고 부른다. 대기설법이란 '상대방의 근기(根機), 즉 정신적 수준에 따른 설법'이라는 의미로 수기설법(隨機說法)이라고도 칭한다. 일본학자 후지타 기요시(藤田 清)는 봇다의 설법을 설법자 중심, 청법자 중심, 두 가지 절충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가운데 그는 청법자 중심이 봇다의 설법방식 중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청법자 중심의 설법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대화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대화과정 속에서 상대는 자신이 가졌던 모순이 명료해지고, 보다 고차원의 입장으로 스스로 나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는 것이다.⁵⁾

후지타가 말하는 청법자 중심의 설법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청법자 중심이 바로 대기설법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청법자 중심의 대기설법을 통한 봇다의 문답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자각을 이끌어 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상대방의 자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봇다는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맞추어 네 가지 방식으로 대답한다.

첫째, 어떤 이에게는 즉시 대답을 주어야 한다. 둘째, 어떤 이에게는 질문의 화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셋째, 어떤 이에게는 질문을 제쳐두어야 한다. 넷째, 어떤 이에게는 분석적으로 대답해 주어야 한다.⁶⁾

이 네 가지 대답방식 가운데 첫째와 둘째와 넷째는 불제자와의 대화에서 사용한 대답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불교의 경전들에서 봇다의 대화법의 유형을

4) 같은 글, pp. 22-23.

5) 최영효, “초기불교중심으로 한 불교의 심리치료의 세 관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10, pp. 83-90.

6) 같은 글, p. 179.

분류해 본 박미순은 붓다가 불제자들과 주로 대화한 방식은 문답과 토론과 반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⁷⁾고 한다. 여기서 문답은 직답으로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첫 번째에 해당한다. 또한 토론은 분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문을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네 번째에 해당한다. 그리고 반문은 바로 대답을 피하고 질문을 질문자에게 되돌리는 형식으로 두 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을 제쳐두는 것은 누구와의 대화에서 사용한 것인가? 이 질문을 제쳐둔다는 의미는 대답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무기(無記)라고 부르는데 주로 외도와의 대화에서 사용한 대답방식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대답방식 가운데 붓다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상대방의 자각에 의한 인식전환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대답방식은 질문의 화살을 되돌려 주는 것과 질문을 제쳐두는 것이라고 보인다. 첫 번째 질문의 화살을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문(反問)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질문을 제쳐 두는 것은 무기라고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대답방식을 통해 붓다의 문답을 통한 대화법의 특징을 살펴보자.

a. 반문(反問)의 특징

반문이란 질문을 되돌린다는 의미이다. 반문은 소크라테스의 반어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화의 과정에서 질문을 질문한 당사자에게 되돌려 묻는 방식이다. 붓다가 대화의 과정에서 질문을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처럼 상대방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하는 대화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붓다는 질문을 되돌리는 방식으로 “於意云何,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왜’라는 말보다 상대방으로부터 보다 폭넓고 자유로운 의사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되묻는 이 말은 붓다의 반문이 소크라테스의 반어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능한 최소의 말로 대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한다.⁹⁾ 그러나 붓다는 상대방과

7) 박미순, 앞의 글, p. 25.

8) 박미순, 같은 글, p. 19.

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我今問汝 隨汝解答, 내 지금 너에게 물으리니 그대가 이해한 대로 대답하라.” 혹은 “汝隨意答, 그대가 생각하는 것을 대답하라.”¹⁰⁾는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질문자를 자신이 규정해 놓은 범위에 묶어 두려고 하는 반면, 봇다는 질문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붓다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피터 랍이 주장하는 철학 상담의 목적에서도 발견된다. 피터 랍은 철학 상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내담자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내담자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내담자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터 랍은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전문가의 조언이나 처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전문적인 조력자 역할만을 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¹⁾ 따라서 피터 랍의 자율성 향상이란 내담자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봇다와 피터 랍의 자율성은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봇다의 반문의 목적은 피터 랍의 경우처럼 자율성의 보장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질문자가 대상화된 자기 자신을 타자로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자의 완전한 자각을 이끌어 낸다. 그러므로 피터 랍의 자율성 보장이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있다면 봇다의 그것은 완전한 자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봇다의 대화방식을 초

9) 장두익, “소크라테스적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문답법”, 『철학윤리교육연구』, 4-11호, 한국 철학윤리교육연구회, 2006), p. 432.

10) 박미순, 같은 글, p. 31.

11) 장영란, “철학 상담과 철학적 대화법”(『존재론연구』 vol 25, 한국하이데거학회, 2011), p. 207.

기경전을 바탕으로 연구한 박미순도 붓다의 교육 방법은 철학적 물음에 대한 해결을 상황에 따른 질문→반문→자각으로 연결 지어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¹²⁾

그러면 붓다의 문답의 진행과정에서 반문이 어떻게 자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가? 붓다는 질문자에게 질문을 되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침가하기보다는 질문자가 한 질문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복하여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니 알고 있는 대로 너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 보라.”라고 말하고 질문을 들려준다. 붓다가 사용한 이 방법은 바로 낭독이다. 낭독이란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보다 귀로 들음으로 해서 책의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붓다가 낭독을 사용하는 것은 질문자가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타자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쳐 질문자는 자신의 질문을 다시 곰곰이 생각함을 통해 스스로 질문의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질문의 오류는 바로 질문자의 인식의 오류이며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자각하게 되면 곧 이어 바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붓다가 반문을 통해 자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붓다의 대화법의 특징이다. 타인에 의한 자각이 아니라 질문자 스스로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불교의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붓다는 중생을 깨달음의 종자인 불성(佛性)을 소유한 완전한 인격체로 본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 중생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두움과 같은 무명의 미혹만을 없애면 종자로 남아 있던 불성이 발아하여 꽃을 피워 완전한 인격체인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붓다의 문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리석음을 자각시켜 불성을 꽂피우게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불성의 완성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한 내면에서의 변화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면의 자각을 개인으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해 반문을 사용하여 질문자를 질문하는 주체이자 자각하는 주체로 만드는 대화의 과정을 설정한 것이다.

b. 무기(無記)의 의미

붓다가 제자들의 질문에 반문을 통해 자각을 유도했다면 외도들의 질문에 침묵을 통해 외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붓다의 침묵을 무기(無記) 혹은 무기설(無記說)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형이상

12) 같은 글, p. 55.

학적 질문들에 대한 봉다의 대응방식이다. 그는 양자택일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경전에 나타나는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인간과 세계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종교와 철학의 근원적 물음에 관한 질문들이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에 대한 두 가지 물음과 미래의 사후 유무에 관한 네 종류의 물음과 영혼과 육체의 동이(同異)에 관한 물음 등으로 10 종류의 십무기설(十無記說) 혹은 14 종류의 십사무기설(十四無記說)로 정리되고 있다.

무기의 파알리어는 *avyākata*로 설명하다 혹은 대답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vyākata*에 부정접두어 *a*가 붙어 '설명되지 않은' 혹은 '대답되지 않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원적 의미만으로는 무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것은 '봉다는 왜 침묵했는가?'라는 침묵에 대한 의지적 의미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라훌라는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봉다가 침묵하는 것을 '고귀한 침묵'이라고 해석한다. 이 '고귀한'의 의미는 봉다가 형이상학적 문제에 혼돈하고 방황하는 질문자를 더욱 혼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침묵은 응변적인 대답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¹³⁾

라훌라가 초기불교와 관련하여 무기에 대한 의지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T. R. V. 무르티(Murti)는 대승불교의 중관철학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무기를 변증법적으로 해석하여 실체의 초월성을 드러낸 침묵이라고 해석하고,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¹⁴⁾라고 번역한다. 한편, 무기와 관련된 질문들이 무의미한 질문들이고 올바른 철학적 질문들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K. N. 자야틸레케(Jayatilleke)는 무기를 '설명되지 않은 (unexplained)' 혹은 '대답되지 않은 (unanswered)'¹⁵⁾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무기는 의지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봉다의 대화법이라는 접근을 통해 무기의 의미와 이유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봉다의 문답을 통한 대화에서 중요한 특징은 질문자에 맞추어 질문자 중심 혹은 질문자 주체로 대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질문도 대답도 대화하는 상대방에 맞춘 대화로 이루어진 가르침이 바로 대기설법이다. 따라서 앞의 반문의 경우도 질문자의 자각을 이끌기 위한 봉다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기의 경우도 봉다가 아니라 질문자인 외도에 초점을

13) 라훌라, 같은 책, pp. 179-180.

14) T.R.V. 무르띠, 「불교의 중심철학」, 김성철 옮김(서울: 경서원, 1995), p. 87.

15) K. N. Jayatilleke,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3), pp. 470-472.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무기 또한 상대방의 질문의 수준에 맞춘 대답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의도 또한 반문의 경우처럼 궁극적으로 자각을 이끌기 위해 거쳐야 하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붓다가 외도의 질문에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반문의 경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외도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한 단계 더 대화의 과정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붓다가 생각한 외도의 질문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 해답은 무기설을 대표적으로 설한 경전인 『전유경(箭喻經)』에서 찾아보자. 이 경전에서 붓다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에 대한 두 가지 물음과 여래의 사후 유무에 관한 네 종류의 물음과 영혼과 육체의 동이에 관한 물음 등이 택일적으로 주어 질 때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러한 물음은 독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독화살은 뽑으려 하지 않고 화살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꾸짖는다. 따라서 이 독화살의 비유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유경』에서 설하는 독화살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터 랍의 철학상담의 목적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듯이¹⁶⁾ 붓다의 대화도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붓다의 대화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들은 인간이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외도의 질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통의 해결책을 찾는 질문들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 즉 논쟁을 위한 질문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붓다는 외도의 질문은 외도에게 현재 당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답을 계속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화를 멈춘다고 하는 것이 대답하지 않겠다거나 대답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기를 단순히 대답을 거부하는 침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붓다의 침묵의 의지에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역이 바로 치답(置答)이다. 그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잠시 제쳐둔다는 의미이다.

한역 치답에 대한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붓다가 왜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침묵했는가?’에 관한 해답을 얻는 방법이라고 보인다. 붓다의 문답법을 통하여 붓다가 외도의 질문에 침묵한 이유와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승경전이 『능가경』이다. 이 경전은 인도불교에서 4-5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

16) 장영란, 같은 글, p. 31.

는 대승경전으로 외도사상의 비판을 통해 대승사상의 정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봉다의 문답법 안에서 무기를 외도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전의 이 부분을 고찰하여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는 문답법에서의 무기의 의미가 「능가경」에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와 봉다가 외도의 질문을 잠시 제쳐두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침묵이 왜 봉다의 대화법의 특징인지를 밝혀보자 한다.

2. 『능가경』에 나타나는 봉다의 문답법과 치답의 이유

대승경전인 「능가경」에도 봉다가 초기경전에서 사용한 네 가지 문답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설법(vyākaraṇa)에는 일향(一向, ekāṁśa)과 반문(反問, pariprccha)과 분별(分別, vibhajya)과 지기(止記, sthāpaniyā)의 네 종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외도의 논하는 바(tīrthavāda)를 계도하기 위함이다.¹⁷⁾

이 구절에 대한 중국 주석을 살펴보면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의 경우,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일향은 직답(直答)이며 질문에 따라 바로 대답하는 것이다. 반힐문(反詰問)은 반질(反質)이며 질문을 다시 질문하는 것이다. 분별은 상세하게 판별하여 대답하는 것이다. 지론(止論)은 잠시 멈추어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¹⁸⁾

또한 이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注大乘入楞伽經」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다.

첫째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것을 일향(一向) 즉 직답(直答)이라 한다. 예를 들면, 일체중생은 모두 태어나고 죽는가라고 물으면, 바로 똑같이 대답하기를 일체중생은 태어나고 죽는다고 대답한다.

둘째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반문하여 대답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힐(反詰)이라고 한다.

17) B. Nanjio, *Lankāvatāra Sūtra* (Kyoto: Otani University Press, 1956), p. 116.

caturvidhām vyākaraṇam ekāṁśarṇ pariprcchanam/
vibhajyarṇ sthāpariyār ca tīrthavādanivāraṇam//

18)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 「대정장」 39권, p. 378.

此四種論。言一向曰直答。謂隨問而答也。反詰問亦曰反質。謂反質所問也。分別。謂詳辯而答也。止論。謂置而不答也。

셋째는 근기(根機)가 높은 사람이 물으면 응당히 널리 분별하여 대답한다. 예를 들면, 일체중생이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마땅히 분별하여 번뇌가 있는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대답 한다.

넷째는 의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침묵한다. 예를 들면, 몸과 번뇌, 계란과 닭 어느 쪽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멈추어 침묵한다.¹⁹⁾

이 경우 문답은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직답 즉 일향을, 토론은 분별을, 반문은 반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침묵을 의미하는 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대답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붓다가 대화 상대자에게 직답을 하는 것은 근기가 낮은 상대자가 혼란하지 않도록 상대자의 질문을 일단 긍정하는 것이고, 반문은 중간 정도의 근기를 가진 상대방이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분별은 충분히 자각된 상태의 상대자에게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상세히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질문자의 근기에 따른 대답임은 『注大乘入楞伽經』에서 밝히고 있듯이 분별은 “근기가 높은 사람이 물으면 응당 분별하여 대답한다.”²⁰⁾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붓다에게 있어 분별 즉 상세히 설명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대화 상대자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능가경』에서 붓다의 침묵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능가경』의 경우,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붓다의 네 가지 대답방식 가운데 무기는 치답(置答)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치답에 대한 두 개의 중국 주석서의 해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석서에는 ‘止論謂置而不答也, 논의를 멈추는 것으로 유보하고 대답하지 않는다.’²¹⁾고 해석하고 두 번째 주석서에서는 ‘止而不答也, 멈추어 대답하지 않는다.’²²⁾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치답의 범어는 sthāpanīya로²³⁾ D. T. 스즈끼(Suzuki)는 ‘setting aside, 제쳐 놓음 혹은 유보해

19) 『注大乘入楞伽經』, 『대정장』 39권, p. 465.

一謂隨問而答名為一向。如問一切眾生悉生死也。應一向答悉皆生死。二謂如有問者。反問令答。名為反詰。三謂根熟問者廣為分別。如問一切眾生死復生也。應當分別。有煩惱者死而復生。無煩惱者死已不生。四謂折伏外道故須置答。如問身與煩惱。雞子雞母孰為先後。故止而不答也。

20) 『注大乘入楞伽經』, 『대정장』 39권, p. 465.

三謂根熟問者廣為分別。

21)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 『대정장』 39권, p. 378.

22) 『注大乘入楞伽經』, 『대정장』 39권, p. 465.

둠'이라고 영역하고 무기의 avyākṛta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unexplainable) 질문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⁴⁾

무기의 어원적 의미를 『능가경』의 본문을 통해 상세히 살펴보자.

avyākṛtāni prṣṭāḥ sthāpanīyam bhāgavatā avyākṛtam iti vakṣyanti

如是等不可記事次第而問世尊說當止記答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유보하고 대답하지 말라고 붓다들은 가르친다.²⁵⁾

『능가경』은 무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형이상학적 질문들 avyākṛtāni prṣṭāḥ이라고 한다. 이것의 한문번역은 불가기사(不可記事)²⁶⁾ 즉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으며 sthāpanīyam avyākṛtam, 유보하고 대답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기답(止記答)'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설명하여 대답하는 것을 멈추라'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유보하고 대답하는 것을 멈추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전에서의 무기의 어원적 의미는 '유보하고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능가경』에서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라는 의미에 관하여 고찰해 보자. 이 '설명할 수 없는'이라는 의미가 무르티의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과 자야틸레케의 '설명되지 않은 (unexplained)' 가운데 어느 것에 근접한 해석인가? 또한 그것이 경험적인 언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침묵한 것인가? 아니면 질문이 올바르지 않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침묵한 것인가? 이에 관하여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붓다는 왜 침묵했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김용환은 두 가지 해석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무기설을 단지 형이상학의 부정, 거부, 배척 등으로 보려는 입장이고, 둘째는 무기설을 단순한 형이상학의 부정 등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인 사유의 한 표현수단으로 보려는 입장이다.²⁷⁾ 물론

23) B. Nanjio, 같은 책, p. 115.

24) D. T. Suzuki, *The Lankavatara Sutra A Mahayana Text* (Boulder: Prajna Press, 1978), p. 100.

25) B. Nanjio, 같은 책, p. 115.

26) 『능가경』은 세 종류의 한문본이 있으며 본문은 7권 『大乘入楞伽經』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구절에 해당하는 다른 두 한문본을 살펴보면 4권 『楞伽阿跋多羅寶經』에는 如是等問, 而言佛說無記止論(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붓다는 침묵하고 논의를 멈추라고 설한다)이고, 10권 『入楞伽經』에는 上上無記置答(위와같은 질문에는 침묵하여 대답을 유보한다)라고 설하고 있다.

27) 김용환, "無記說(Avyakāta)에 대하여"(『인문논총』 vol.37 no.1, 부산대학교, 1990), p.

무르띠도 자야틸레케도 후자의 입장에 속한다.²⁸⁾ 전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학자 미즈노는 붓다가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배척한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질문들이 우리들의 인식과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붓다가 침묵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²⁹⁾ 위의 『능가경』에서 무기를 ‘불가사지 즉 설명할 수 없는’이라는 번역이 우리들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침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야틸레케와 유사한 견해인 후자의 입장에서 무기설을 단순히 형이상학의 부정으로 보는 전자의 견해를 비판하는 와쓰지 테쓰로(和辻哲郎)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의는 ‘왜 대답하지 않는가?’라는 것 가운데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³⁰⁾고 한다.

『능가경』은 ‘왜 대답하지 않는가?’라는 이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해여, 미래세에 삼된 소견을 가진 자가 동일상과 별이성과 구와 불구상으로 모든 지혜있는 이에게 물으면 그들이 곧 답하기를 ‘이것은 바른 물음이 아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리라.³¹⁾

『능가경』의 대답은 ‘此非正問, 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능가경』의 대답은 와쓰지가 붓다가 침묵을 지킨 것은 이들이 참된 철학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고,³²⁾ 로젠헤르그와 자야틸레케가 그들이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붓다의 형이상학적 견지에서 관찰하면 그들 문제에 해답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³³⁾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질문들이 왜 바르지 못한 질문인가에 대한 붓다의 해명이 필요하다.

123.

28) 같은 글, pp. 136-137. K. N. Jayatilleke, 같은 책, pp. 471-476.

29) 김용환, 같은 글, p. 123.

30) 같은 글, p. 131.

31) 『大乘入楞伽經』券16, p. 604.

復次大慧，未來世中有諸邪見惡思覺者，離如實法，以見一，異，具，不具相，問諸智者，彼卽答言，次非正問。

32) 김용환, 같은 글, p. 132.

33) 같은 글, pp. 132-133.

대해여, 설명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때에 말할 것으로 근기가 미숙하여 잠시 설명을 멈추기 때문이다.³⁴⁾

붓다의 대기설법에는 불제자와 외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질문자의 정신적 수준에 맞추어 질문자가 주체가 되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붓다의 대화의 특징이다. 그래서 붓다가 외도에게 침묵한 이유는 질문자의 수준에 맞춘 대화방식이다. 즉 그 질문자의 수준이 미숙하기 때문에 잠시 대화를 멈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수준에 벗어나는 설명을 하여 질문자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³⁵⁾ 내어 정신이 더욱 혼미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질문자의 근기가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는 질문자가 형이상학적 질문을 이해하고 토론할 정신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와 같은 정신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어린이들의 철학교육 가능성을 제시한 G. B. 매튜스도 골치 아픈 문제들을 토론해 보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말을 거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끝없는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으나 묻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정답 없는 철학적 물음인 것이다.³⁶⁾ 그래서 붓다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일적인 답을 요구하며 질문하는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이 바로 어린이의 철학적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와 골치 아픈 문제를 토론을 하기 위해 말을 거는 경우가 없다는 매튜스의 말처럼 붓다도 어린이와 형이상학적 토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를 기다리기 위한 방식이 바로 침묵인 것이다. 따라서 이 침묵은 질문자가 질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잠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보하고 대답하지 않는 ‘이타적 침묵’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注大乘入楞伽經』에 “설하지 않는 것은 외도가 (질문을) 돌이켜 생각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³⁷⁾고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반문을 사용한 것처럼 붓다가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외도가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붓다가 무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34) 『大乘入楞伽經』券16, p. 604.

大慧, 止記論者我別時說。以根未熟且止說故。

35) 『大乘入楞伽經』券16, p. 604.

愚夫無智非所能知, 佛欲令其離驚怖處, 不爲記說。

36) 박미순, 같은 글, p. 55.

37) 『注大乘入楞伽經』, 「대정장」 39권, p. 465.

질문자가 수준이 미숙하여 충분히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붓다가 형이상학적 질문에 무지하다거나, 사상적 반성을 하지 않았거나, 인식과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이유는 바로 ‘別時說, 다른 때에 설명한다’에 있다. 이것은 질문자가 충분히 성숙하면 그때 대화를 진행하여 설명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해석이 『능가경』에서 무기를 ‘대답을 유보하여 잠시 제쳐둔다’는 의미의 *sthāpanīya* (置論)로 표현한 근거가 된다. 또한 『능가경』에서 무기를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르띠의 ‘표현할 수 없는’보다는 자야틸레케의 ‘설명되지 않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바르고 참되고 논리적인 질문인가? 와쓰지는 참된 철학적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아, 오온, 연기, 사제 등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라고 한다.³⁸⁾ 또한 라훌라는 무아의 개념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했다³⁹⁾고 한 것으로 보아 초기경전에서의 바른 질문은 무아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한 질문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능가경』에서의 바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대혜여, 설명하지 않는 것은 외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작자란 소견에서 벗어나고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대혜여, 모든 외도들의 무리들은 작자가 있다고 계교하여 말하기를 목숨이 곧 몸이다. 목숨이 다르고 몸이 다르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질문은 설명할 수 없는 논이라고 한다.⁴⁰⁾

『능가경』에서는 작자(作者)라는 소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인식한 것이어야 한다. 작자라는 소견에서 하는 질문은 모두 무기, 즉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벡크는 “『전유경』의 독화살의 비유에 근거하여 죄과의 고뇌와 관능에 사로잡힌 사과의 화살을 뽑아낼 때 비로소 형이상학의 문제에 대한 참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붓다는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⁴¹⁾고 하여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형이상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참된 인식에서

38) 김용환, 같은 글, p. 132.

39) 라훌라, 같은 책, p. 179.

40) 「大乘入楞伽經」券16, p. 604.

大慧, 不記說者, 欲令外道永得出離作者見故. 大慧, 諸外道衆計有作者作如是說, 命卽是身, 命異身異, 如是等說名無記說.

41) 김용환, 같은 글, p. 133.

나온 질문이 바른 질문이라고 한다.

작자란 무엇인가? 『능가경』에서 “이 작자는 모든 만물을 생성하는 원인으로 창조주이고, 외도는 나(我)에 집착하여 내 모양(我相)과 진실한 구나(guṇa)인 작자가 있다고 보아 집착을 낸다.”⁴²⁾고 한다. 작자는 세상만물을 생성하는 제일원인으로 외도들은 아트만(ātman)이라고 한다. 그래서 작자란 아트만으로 세상만물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다.

인도철학에서는 세상만물을 생성시키는 제일원인이 있어서 만물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런데 세상만물을 창조하는 그 원인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중유과론(因中有果論)이 수론학파가 주장하는 유견(有見)이고, 원인이 있어 만물을 창조하지만 원인에 결과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원인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인중무과론(因中無果論)은 승론학파의 무견(無見)이다. 그러나 붓다는 이 유무의 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아를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가경』에서도 유무의 견해를 모두 배척하고 있다.

수론(數論)학파와 승론(勝論)학파는 유생(有生)과 무생(無生)을 말하나,
이런 따위의 모든 말은 일체 모두 무기(無記)이다.⁴³⁾

유무의 견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질문은 무기이다. 이 유무에 대한 논쟁은 모두 작자, 즉 제일원인이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이므로 작자에 대한 견해를 벗어나야 한다. 『능가경』에서 “능취 소취를 벗어난 오직 제 마음이 보이는 것임을 깨달지 못하면 응당 무기해야 하느니라.”⁴⁴⁾라는 것으로 보아 오직 마음(唯心)임을 깨달은 이후에 바로 참된 인식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경전에서는 무아를 깨닫는 것이 바른 인식의 시작이라면 대승경전인 『능가경』에서는 자심소현(自心所現), 즉 오직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임을 깨달으면 아트만 즉 작자가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때 바른 인식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바른 인식에서 묻는 형이상학적 질문이야말로 바른 질문이며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이다.

42) 『大乘入楞伽經』券16, p. 600.

外道執我見，有我相及實求那而生取着。

43) 『大乘入楞伽經』券16, p. 604.

數論與勝論言有非有生如是等諸說一切皆無記。

44) 『大乘入楞伽經』券16, p. 604.

大慧若有執着能取所取了不唯是自心所見彼應可止。

III. 결론

이 논문에서는 문답으로 진행되는 붓다의 대화법의 특징과 무기설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붓다의 대화법의 특징은 대기설법으로 대화의 과정에서 질문자가 질문의 주체이자 자각의 주체가 되도록 이끄는 것에 있다. 질문자가 주체가 되어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붓다는 제자들에게 질문할 것을 권유한다. 그 이유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보다 질문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스로의 인식과 자각이 바로 문답을 통한 붓다의 대화법의 목적인 것이다.

붓다의 대화법에 있어서 질문도 대답도 모두 질문자가 주체가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붓다의 대답 또한 질문에 따라 네 가지로 선택된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반문과 무기가 문답법의 특징으로 밝혀졌다. 첫째, 반문은 질문자의 질문을 되물어 스스로 자신의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자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붓다의 반문은 불제자에게 사용한 방법으로 붓다가 대화 중 질문자가 질문의 주체가 되고 자각의 주체가 되도록 이끄는 독특한 방식이다. 붓다는 반문을 통해 질문자가 스스로 전도된 인식을 자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반문을 통해 바른 인식을 갖춘 질문자에게 상세히 분별하여 가르침을 설하여 작은 미혹도 남김 없이 제거하여 열반에 도달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붓다의 대화법에서의 반문은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을 통해 주체력을 키워서 열반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무기는 침묵으로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붓다가 침묵을 취한 것을 말한다. 이 무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붓다의 문답을 통한 대화법이라는 접근방법으로 『능가경』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능가경』에서는 붓다가 외도의 형이상학적 질문에 침묵하는 이유는 그 질문들이 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질문이 아닌 것은 질문자가 정신적 수준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므로 바른 인식을 갖춘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의 무기의 의미는 '설명되지 않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능가경』에서 밝히는 바른 인식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인 작자(作者)에 대한 잘못된 소견을 버리고 세상만물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래서 질문자가 유심(唯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출 때까지 잠시 대답을 유보하여 대답을 멈춘다고 하여 무기를 치답이라고 한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붓다의 침묵은 외도를 향한 붓다의 반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침묵이라는 반문을 통해 외도가 스스로 자신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수준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이타적 침묵'인 것이다.

주제어: 무기설, 능가경, 대기설법, 봇다의 대화법, 반문

원고접수일: 2012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참고문헌

- 『大乘入楞伽經』, 『대정신수대장경』 卷16, no. 672.
- 『入楞伽經』, 『대정신수대장경』 卷16, no. 671.
- 『注大乘入楞伽經』, 宋 寶臣 述, 『대정신수대장경』 卷39, no. 1791.
- 『楞伽阿跋多羅寶經註解』, 宗泐 如己 同注, 『대정신수대장경』 卷39, no. 1789.
- 『入楞伽經』, 安井廣濟 역, 京都: 法藏館, 1976.
- 『大승입능가경』, 김재근 역, 서울: 덕문출판사, 1978.
- 『入楞伽經』, 『한글대장경』 159, 서울: 동국역경원, 1990.
- 『능가경』 역주, 박건주 역주, 서울: 운주사, 2010.
- Laṅkāvatāra Sūtra*, ed. Bunyiu Nanjo, Kyoto: Otani University Press, 1956.
- The Lankavatara Sutra A Mahayana Text*, Tr. D. T. Suzuki, Boulder: Prajna Press, 1978.
- Des Gupta,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vol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2.
- K. N. Jayatilleke,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3.
- R. 뿔리간들라, 『인도철학』, 이지수 옮김, 서울: 민족사, 1993.
- 라다 크리슈난, 『인도철학』, 이거룡 옮김,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1997.
- 윌풀라 라훌라,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역주,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5.
- T.R.V. 무르띠, 『불교의 중심철학』, 김성철 옮김, 서울: 경서원, 1995.
- 水野弘元, 『原始佛教』, 동봉 옮김, 서울: 진영출판사, 1987.
- 권오민, 『인도철학과 불교』, 서울: 민족사, 2006.

논문

- 권경희, “불교상담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불교와 심리』 vol.2,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 심리연구원, 2007.
- 김용환, “無記說(Avyakāta)에 대하여”, 『인문논총』 vol.37 no.1, 부산대학교, 1990.
- 박미순, “불교초기경전에 나타난 불타의 대화법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9.

- 안승대, “새로운 대화법 창출에 관한 연구: 소크라테스, 프레이리, 원효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5-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8.
- 이중표, “무기의 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vol 11, 한국불교학회, 1986.
- 장두익, “소크라테스적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문답법”, 『철학윤리교육연구』, 4-11호, 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2006.
- 장영란, “철학 상담과 철학적 대화법”, 『존재론연구』 vol 25, 한국하이데거학회, 2011.
- 최영효, “초기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심리치료의 세 관점”, 석사학위논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2010.

<Abstract>

Characteristics of Buddha's Dialogic Method and Avyakātavāda on the *Lankāvatarasūtra*

Kim, Suah(TongMy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Buddha's silence, i.e. Avyakātavāda based on *Lankāvatarasūtra*, the Mahayana Sutras, and to examine Avyakātavāda focusing on Buddha's dialogic method which is based on Daegi Buddhist sermon. Buddha's dialogic method is an important element for Daegi Buddhist sermon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other party of dialogue. Buddha draws the questioner's inner change by making the questioner the principal agent proceeding with dialogue and realizing personally, rather than providing the questioner with the knowledge unilaterally in the course of dialogue. In order to maintain this dialogic method with the questioner as the principal agent, Buddha answers to the questions in four ways according to the questioner's spiritual level.

Of these four answering methods, it is Banmoon, meaning asking in return, and Jigi, meaning silence tha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Buddha's dialogic method best.

First, Buddha's Banmoon is the method used for Buddhists. This is a unique method in which Buddha makes the questioner the principal agent and become the agent of self-awareness. Buddha induces the questioner to be self-aware of inverted cognition through Banmoon. Accordingly, Banmoon in Buddha's dialogic methods is Buddha's unique way of salvation so that the questioners can be led to nirvana by cultivating autonomous capabilities to solve problems personally through meditating their questions.

Second, Buddha's Avyakātavāda is Buddha's method of answering non-Buddhists' metaphysical questions. *Lankāvatarasūtra*'s answer to the question, 'Why did Buddha keep silent' is that it was because Buddha considered that non-Buddhists' metaphysical questions were not right questions. And it says that the reason that they are not right questions is that the questions are asked when the questioners' spiritual level is not mature enough to be equipped with right cognition. So the meaning of Avyakātavāda in *Lankāvatarasūtra* is interpreted as 'not explained.'

Lankāvatarasūtra says that in order to be a right question, the questioner should be equipped with right cognition and it should begin with realizing that all created things appear in one's mind and getting rid of wrong opinions about the Creator creating all things. So Avyakātavāda is interpreted as Chidap (置答) since the answer is temporarily reserved until the questioner is equipped with right cognition about Citta-Matra. Accordingly, Buddha's silence can be regarded as Buddha's Banmoon toward non-Buddhists, and it is 'altruistic silence' waiting for non-Buddhists' spiritual level to be mature enough to solve problems personally by continuously thinking about their questions through Banmoon which is silence. Thus, this thesis newly established the meaning of silence of the question, 'Why did Buddha keep silent?' by examining the meaning of Buddha's silence in *Lankāvatarasūtra*, i.e. Avyakātavāda within the framework of Daegi Buddhist sermon, which is characteristics of Buddha's sermon methods, and Buddha's dialogic method.

Key Words: Avyakātavāda, *Lankāvatarasūtra*, Daegi Buddhist sermon, Buddha's dialogic method, Banmoon(反問)